

Preview

#1. 읽기란?

#2. 문항 유형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에서 묻는 '읽기'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찰이 곧 지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수능 영어 지문과 문항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1. 짧은 학술적 글이다.
2.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3. 사고 양상은 전개 양상을 따라간다.
4. 공통적인 요소들의 집합이다.

1.

학술적 글은 전문가로서 필자 자신의 메시지 혹은 논리를 'academic'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짧은 것은 그러한 메시지나 논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좀 더 상세하고 긴 글에서 필자의 의견을 보아지만 필자의 아이디어를

더욱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수능 영어 지문은

압축되고 압축되어 정보 흐름이 딱딱하고 인지적 부담을 주기에 최적화되었다는 말이다.

2.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할까.

논리 구조는 필자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핵심 아이디어란

필자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의도이고.

조직과 전개 방식은 각각

글을 구성한 방식과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조직과 전개 방식을 선정하기 전에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조직 방식과 전개 방식은

핵심 아이디어의 가장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논리 구조를 '올바르게' 따라가면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자.

3.

사고 양상은 전개 양상을 따라가게 된다.

전개 양상은

앞서 말한 논리 구조와 가장 직결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우리는 전개 양상에 맞추어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글은 A를 말한 다음에야 B를 말하는데

독자로서 B를 먼저 생각하고 A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분에 대한 개념을

방정식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듯이

글은 하나의 Flow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다시 말해, 구문 독해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진술문에 대한 필자의 언급에 독자로서 개인의 주관을 너무 개입시키는 것은 핵심 아이디어를 오히려 곡해하고 읽기 route를 모도한다.)

4.

공통적인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수능 영어 지문에서 항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크게 '인지적 부담 관리'와

'흐름 연결(Conn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부담이란.

글 속 정보 자체가

우리의 독해 과정에 주는 부담으로.

이를 제때제때 쳐내지 않으면

결국 '눈만 따라가는' 독해를 하게 된다.

흐름 연결이란.

두 요소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인지로 말미암아

지문이 끝나지 않은 한 끊기지 않는

정보 Flow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는 화살표를 그리든.

동그라미나 네모를 그리든.

어떻게든 포인트 정보와

그 플로우를 보이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1. 문항 유형이란?

문항 유형이란?

문항은 총 45개로,
17 문항은 듣기, 28 문항은 읽기 파트이다.
듣기 파트는 고득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듣기는 깊게 다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읽기 파트는 고득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적으로 듣기 파트는 37점,
읽기 파트는 73점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읽기 파트 속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함축의미추론
2. 빈칸 추론
3. 순서 추론
4. 문장 삽입 (추론)

이 외에도
주제, 제목, 요지, 일치 불일치, 어법, 문맥상 낱말, 문맥상
문장, 문단 요약, 장문독해 1, 장문독해 2가 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형이 있다.
현 시장에서는
유형별 접근법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유형은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마다 다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진정 효율적인 것일까?
효과적이긴 할까?'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 내에서도 빈칸이 위에 위치하는 경우,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밑에 위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가르치
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케이스 분류를 싹 다 하여 각각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필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영어의 읽기 파트에는
메인이 되는 두 유형과 그 외만이 존재한다.

1.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2.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
3. 그 외

1의 경우
18 19 20 21 22 23 24
30 31 32 33 34 40 41 42
(빈칸추론과 40번(문단 요약)은 2의 경우보다는 1의 경우에
더 가깝기에 1로 분류하였다)

2의 경우
36 37 38 39

그 외
25 26 27 28 29 35 43 44 45
가 있다.

지문이 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의 경우,
지문을 다 읽고 얻은 정보를 통해
추론하고 정답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안점이다.

지문이 불완전하게 제시되는 유형의 경우,
지문의 각 부분을 읽고
'매끄럽게 만드는'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그 외의 것은 수능 영어에서 비중 있게 연습해야 하는 문항
들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의 유형보다는 1과 2의 경우의 유형 위주
로 다룰 것이다.

보았듯,
두 유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평가 요소는 다르다.

지문이 완전하다면
'이해'와 '선지 가려내기'의 사고가 중요한 반면,
지문이 불완전한 경우
'매끄럽게 만드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고로 우리는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에는 오직 세 가지,
'이해하는 법'
'매끄럽게 만드는 법'
'선지 가려내는 법'
만 알면 된다.

이 독해 개념서는 위 세 가지 영역의 독해 이론을 다룰 것
이다.

#1. 읽기란?

다만 개념 파트를 알아보기 전에,
필자가 작성하여 배포한 수십 가지의 칼럼 중
몇 가지 칼럼을 보고 가자.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 칼럼들의 내용이 몇백 배는 더 잘 와 닿을 것이다.

1. 생각이라는 것을 합시다.

독에 치중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해에 대한 강조를 하다보니
감이 아닌 각에 초점을 두게 되더군요

메커니즘은 쉬워요

예를 들어
문장 1 다음에 문장 2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문장 1은 지문의 첫 문장이고
문장 2는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이죠

문장 1에서 나오는 글 속 요소는
일반적으로 '소재'와 '소재의 성격'입니다
(Ex. 세종대왕은 성품이 좋으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문장 2에서 한대산 이야기를 할까요?

99.9퍼센트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또한 문장 1과 같은 틀에서 엮이는 것이기에
문장 1에서 시작된 흐름 위에서
문장 2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문장 2에서는 앞서 말한 그 문장의 흐름을 이어받아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죠
Ex. 세종대왕은 훈민정음도 만드셨다

여기까지 한 번 보면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텍스트 하나하나 다 처리하십니다

(영어 어순이었다면)
문장 1: 세종대왕은 가졌다 좋은 성품을
문장 2: 세종대왕은 또한 만드셨다 훈민정음을

근데 제가 말하는 문장 속 포인트 뽑아서 연결시키는 것은
분배법칙처럼 [세종대왕 (성품 굳 + 훈민정음 만듦)] 입니다.

여기서 보면 좋다고 적힌 말을 굳으로 바꾸었죠?
본인한테 와닿게 easy하고 친숙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어순으로 이해하지 말고
한국말 어순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 (a) <-> ? (b)
= ? (a VS b) or 공통분모를 가진 두 대상의 대립구도
나 다른 식의 맥락도 다 와닿습니다
글이 흘러가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 수능 영어 잘하는 사람 특징 세 가지

1. 텍스트의 표면적인 것만을 다루지 않는다.
2. 어느정도 읽다 보면 주제가 '올바르게' '필자가 의도한대로' 잡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잘 뚫어나간다.
3. 선지의 함의와 지문의 내용을 꿰뚫어본다.

적혀져있는 텍스트에 국한되지 마세요
근데 웃긴건
그렇다고 너무 뻘어나가면 안됩니다

#1. 읽기란?

2. 영어는 학원도 인강도 필요 없는 이유

생각이란 거만 하면
시간도 줄고
하나를 봐도 깊이도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가는 이유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왜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답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세 가지 종류의 생각만 하면 됩니다.

1) 글 속 정보 이해
(소개된 정보 끌어와서 지문 뒷부분이랑 연결)

2) 문맥 파악
1번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 이 얘기하는구나')

3) 선지 적절성 판단
1, 2번 성실히 수행하면 글 다 이해되기 때문에 선지의 오
류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필자에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 2) '앞에서 뭐 얘기했더라'
- 3) '이렇게 이어지네'

3. 왜 생각하는가?

글에서 주는 인지적 부담 (안 하면 정보 처리 과부하) 관리
해야 해서. 그게 끝.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는 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인지적
부담 관리하는 것.
생각 안 하면 눈만 따라가다가 글이 끝나서 '내가 뭘 읽었지'
'라고 생각함
생각 하면 글 속 정보 흐름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혀서 '옹
이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생각 할 수 있음

혼자 해석해보고 답지에서 대조시켜보는 걸로 하면 독학 가
능합니다

답지 보고 해석하지 말고
해석하고 답지 봐주세요
(답지 웬만해서는 안 보는 거 추천)

해석
생각(의 흐름)
정답 추론 과정

이 세 개만 알면 끝나요

결국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구문독해 공부 방법

한 문장을 봤을 때 아래와 같이 접근했습니다
(해석은 완벽히 다 되는 상태였습니다)

1. 문장 요지 뽑기 (간결화)
2. 지문에 있었더라면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일지 (첫 문장 / 예시문 등등)
3. 앞 문장이 있었다면 뭘 얘기가 나왔을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지)
4. 뒷 문장이 있다면 뭘 얘기가 나올지 (후속 현상이나 주어진 문장에 현상이 들어간 경우 그것에 대한 풀이가 어떠한 풀일지)
5. 필자의 뉘앙스가 들어가있다면 뉘앙스 냄새 맡기 (ex. should 나오면 그게 뉘앙스구나 /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거 하면 안되는 구나 등)

이렇게 하면
문장 요지는 한 눈에 보이고
순서 삽입도 대비됨과 동시에
문맥 파악도 잘 되더군요

문장 해석은 완벽하게 되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보기가 어
려운 분들이 구문독해 공부를 한다면 유용할 팁이었습니다

4. 사실 영어 지문은

사실 영어 지문은
딱딱한 투로 번역된 한글 해석본 말고
제대로 의역해서 틀에 맞게 글 정리하면

그냥 중당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동화입니다.
(동화의 사전적 의미랑은 다르겠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의역하고
어떻게 틀에 맞게 사고할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의역은 어휘력과 구문 해석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요
틀에 맞게 사고하는 것은 수많은 지문을 통해 필자가 제시
하는 사고 방향에 맞추어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보면서 해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읽기란?

보았는가.
필자가 방금 보여준 칼럼들은
최근의 것도, 아주 예전(1~2년 전)에 작성한 것도 있다.

다만 강조하는 바는 언제나 같았다.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기본 지식부터 알고 가자.

근본적으로 수능 영어 지문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 처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아주 이론적이고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장담한다.
도움된다.

수능 영어 지문은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뉜다.

얼마나 추상적이냐에 따라 위와 같이 나뉘는데,
도입은 매우 추상적이고
결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전개는 어떠한가?
전개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이어주는,
'구체화 과정'이다.

매우 추상적인 도입 부분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도입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바로
'소재'와 '소재의 성격'이다.

소재는
글 속 전반의 흐름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암시하는
'유튜브 영상 제목'이다.
이는 사물 현상 개념 혹은 키워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소재의 성격은
그러한 소재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나 '특징'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썸네일'이다.

'유튜브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보면
영상이 어느정도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문항을 보고

첫 문장을 이해해보자.

제한 시간은 20초이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umans, who have developed their ability to survive through the complex dynamics of society and harsh restraints of inborn ability, are apt to seek their mental refuge, however irrational it might be. The complicated concept of such human behavioral tendency aligns with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comfort zone, a setting where one feels as though he is in control. An in-depth look at a calm state of mind that influences personal growth shows that it enhances efficiency up to a particular moment for those that one has performed many times, and quite contrary for those that one has never tried.

- ① Is Comfort Zone Effective for Human Survival?
- ② How We Should Perceive Comfort Zone in terms of Efficiency
- ③ Comfort Zone: Efficient and Certified Method of Resting
- ④ The Need for Comprehensive View on Comfort Zone
- ⑤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Comfort Zone?

#1. 읽기란?

InDePTh (인덱스) 모의고사 1회차 24번 문항이다.
첫 문장을 보자.

"Humans, who have developed their ability to survive through the complex dynamics of society and harsh restraints of inborn ability, are apt to seek their mental refuge, however irrational it might be."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소재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humans', 즉, 인간들이다.

다만 'develop'과 'are apt to'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인간에 주안점을 둔 도입 부분이 아닌,
그들의 발달 과정과 'mental refuge'를 찾는 경향성이
소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자.
'however irrational it might be.'라고 하였다.

이는 직역하자면
'얼마나 그것이 비이성적일지라도'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그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다.

'얼마나 비이성적일지라도 ~~~ 한다.' 하였으니.

적어도 마냥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자.

이미 우리는
소재와 소재의 성격을 알아내었다.

소재:
'인간의 발달 과정과 인간의 경향성 (정신적 피난처 찾기)'
소재의 성격:
'비이성적임 (부정적인 필자의 스탠스)'

이를 화살표로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발달 -> 정신적 피난처 찾는 것 -> 비이성적

소재 파악 후 소재를 한 번 가다듬고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한 다음 종합적으로 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도입의 요지이다.

도입의 요지는
필자가 본인의 세상을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제 예고편을 보았다면 본편을 봐야 한다.

본편에서는
예고편에서 다뤄졌던 요소들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더 확장된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1. 읽기란?

전개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책에서 계속 언급될 몇 가지 주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다음 페이지의 문항을 보자

대상이란 소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나 사물, 혹은 현상이다.
특성은 대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지칭한다.
특징은 특성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특성의 세부적인 예시이다.
맥락적 장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맥락 속
글의 핵심 포인트에 대한 단서 그 자체일 수도, 혹은 단서를 가진
부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학이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제약하는
현상을 말한다.

글의 방향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전개 부분에서
독자로서 우리는 지문 속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그려지는 맥락의
흐름을 위에 나온 표현(대상/특성/특징/맥락적 장치)들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 요점을 파악한 후 머리에
머금고 있다가
이후 이어지는 문장의 요점과 합쳐
맥락을 이해하고
그 맥락을 한 번 더 간결하게 만들어 이어지는 문장들의 포인트를
가려내어야 한다.

전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읽으며
따라가는 사고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만약 전개 부분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암시적인 방식으로 역학 관계를 드러내어 추론을 해야지만 글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든다면
지문 이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전개 부분에서 명시적인 정보 흐름을 드러내었다면
오직 나타난대로 사고하면 되는 것이기에
추론의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다.
고로 지문 이해의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글을 읽는 법을 연습하는 과정에 있는 독자
여러분들은
전자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34. The modern community, where every individual is not being stubborn to the trends has been gradually formed after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users. After all, common sense these days induces people to catch up with a particular 'theme of the day' every day, lying at the heart of social media. Algorithms endlessly recommend a range of so-called 'useful' information to each participant of society by making individual profiles of people to nudge particular concepts, making people less subject to subjectivity. Therefore, it is not a lie to say that _____ . Harmless stimuli that do not influence one's self-perception do not exist, but individuals manage to overcome them by mixing them with their original ideas, experiences, and frameworks. However, interpreting oneself in this massive flow distorts how one perceives the world, unknowingly attempting to remove oneself from the very standings of a subject. [3점]

- ① experience is not experienced anymore
- ② the term passive subjectivity seems to be valid
- ③ our world has been shifted to social media
- ④ individuals are tuned for social atmosphere
- ⑤ attempts to unify diversified trends

#1. 읽기란?

도입 부분에서 modern 공동체가 형성된 과정과 그 속의 개인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본격적인 전개 부분은 After all ~ less subject to subjectivity인데, 'common sense'가 개인들이 특정 주제를 계속해서 따라잡게끔 유도한다고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끝없이 일명 '유용한' 정보를 추천하여 특정 concept을 던지시 드러내게끔 (nudge)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king people less subject to subjectivity인데, 이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한 '풀이'이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현상'과 '풀이' 중 '풀이'이다. 주어진 현상에서 뽑아내야 하는 요지를 이미 '풀이' 부분에서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이 주체성에 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주체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개에서 나온 부분은 이것이 끝이다.

우리는

문장 포인트 요약

-> 머금기

-> 다음 문장 포인트랑 붙이기

-> 맥락 파악하기

-> 다음 내용 예측도 해보기

의 과정을 반복하며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한 번 적용해보자.

편의상 문장 1과 문장 2로 나누어서 서술하겠다.

문장 1) modern 공동체 형성 과정 + 트렌드에 대해 고집스럽지 않은 개인들!

머금기: 사람들이 계속 트렌드 따라가는구나 + modern community가 ~ 형성되었구나

문장 2) 'common sense'가 특정 주제를 계속 따라잡게끔 하는구나. + 소셜 미디어의 핵심부에 'common sense'가 있구나

머금기: 'common sense'가 소셜 미디어랑 연관되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 특정 주제를 따라가게끔 하는구나

-> 맥락 파악하기: 사람들이 계속 트렌드 따라가는 이유가 소셜

미디어랑 연관 있는 'common sense'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특정 주제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특정 주제가 '트렌드'를 말한 것이었구나

다음 내용 예측 해보기: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문장 3) 알고리즘이 소위 말하는 '유용한' 정보를 계속 주는구나, 특정 concept을 던지하네? 결국 사람들이 주체적이지 못하게 되는구나

머금기: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들이 주체적이지 못하군!

-> 맥락 파악하기: 'common sense'가 소셜 미디어에 있고, 그 속의 알고리즘 또한 사람들이 계속 끌려다니게끔 만드네.

-> 간결하게 만들기: 여러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주체적이지 못하게 되는구만! (알고리즘 & common sense)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지만

복잡한 지문들을 뚫어내고 사고할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자.

Chapter 1. 도입

#1. 도입의 특성

#2. 도입의 사고 과정

#3. 전개로 넘어가기 전

(맞보기)

도입은 필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마치 야구공을 던지기 전 그립을 잡아두는 과정인 셈이다.

하지만 타자인 우리는 그 그립을 타석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해보자)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 그립과 공의 타점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립이 보이지 않고 타점을 예측할 수 없지 않을까?

이 책을 읽는 그대는 어디에 속하는가?

전자는 도입부에서 나오는 글 속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한 사람,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읽는 사람이다.

후자는 글이 잘 외닿지 않아서 글에게 '끌려가는',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읽는 사람이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로 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해석 능력
2. 이해 능력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가?

그렇다. 지문을 잘 못 읽는 이유가 위 두 요소였음은 아주 명료한데,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당연히 전자를 지향해야 한다.

글 속 구성 요소 중 도입부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재'와 '소재의 성격'이다.

지문은 역삼각형 구조를 띠는데, 추상적인 도입에서 구체화 과정인 전개를 지나 구체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기 때문이다.

도입은 다양한 맥락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지문의 첫 부분으로, 처음에 나오는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을 지칭한다.

도입에서는 지문 전반에 걸쳐 다루지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인 '소재'와 그것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다. 소재와 그것의 성격에 대한 인지는 향후 지문에서 나타나는 맥락에 대한 원활한 이해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다음 배포에는 '도입의 사고 과정'과 '전개로 넘어가기 전', 그리고 '문장 포인트 가려내기 (구문독해 해결책)' 이 추가됩니다!)